

## 2015 4. 12 부활 제 2 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제 1 독서 : 사도행전 4,32-35 <한마음 한뜻 .>

제 2 독서 : 요 한 1 5,1-6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깁니다.>

복 음 : 요 한 20,19-31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베이크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지난 주일 부활 대축일을 보내며, 오후에는 운전을 하면서 사제관 밖을 돌아 보았습니다. 늦은 오후임에도, 공원이란 공원은 모두 피크닉나온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유럽스타일의 셀리브레이션인데, 유럽에서는 부활주일 다음 월요일에 전부 들에 나가 양고기를

먹습니다. 아마 미국은 월요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에 그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당은 반정도 밖에 차질 않았습니다. 오늘 미사의 하느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하느님의 예언자나 구원자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즉 하느님을 어떻게 믿어라! 하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나만의 믿음인가를 우리가 계속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 **내 방식의 믿음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기쁨은 갖다 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거짓 기쁨이겠지요. 바람피는 사람이 왜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일단은 행복하니까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참혹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따라 간다면 그 순간에 나는 편할 것입니다. 왜냐?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끝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제 2 독서에 잘 나오지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들 예수, 그분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분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사람들입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오늘 제 1 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사순과 부활을 맞이하면서 사도행전을 완독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제 1 독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받는 삶입니다. 원하는 만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을 하는데,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아무도 부족하지 않게 받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나 하면, 모든 사람이 가진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로 가져 왔다고 합니다. 그럴때에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은 너무도 혹독하고 힘든 삶이예요, 나만을 위해서라면.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채워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자신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따져봅시다. 자기의 능력에 맞게 받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기주의적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각박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예언자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 하는 세상은, 바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나누어쓰는 것입니다. 우리공동체를 보십시오. 내일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더 가지지를 못하여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스사도의 의심을 풀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지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 우리는 토마스사도처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기도회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체험을 통해서 보여 주실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체험을 하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신앙을 제대로 지켜 나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방식대로 믿기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 행복할까요? **보지도 않고 믿는데 왜 행복할까?**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희망을 가질때에 무엇이 생기느냐? 바로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자와, 없는 자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믿음은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고,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늘 달콤하고 쉬운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지면 가질 수록, 어떤 사람에게는 더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결과는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비오신부님의 전기에 대해서 읽어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오상을 받으신 신부님이십니다. 프란치스코 성인도 오상을 받으셨지만 가장 최근에 오상을 받으신 분은, 바로 비오 신부님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믿음으로써 받은 그 오상은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나날이 고통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오상을 거부할 것입니다. 다시 1독서 요한 1서로 돌아와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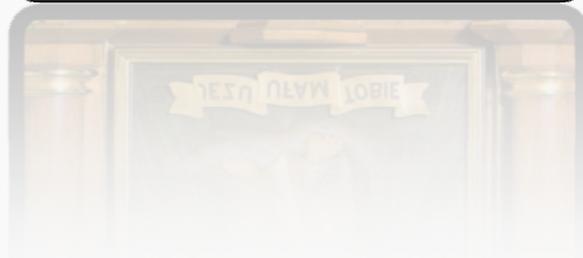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세상의 주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주인과 노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자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내가 나날을 걱정하고 산다면, 나는 이 세상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안가지고를 따지지 않고, 주님안에서 산다면, 바로 나는 이 세상을 이긴자입니다. 토마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도 집어 넣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였음에도, 내가 직접 그 안에 손가락을 넣어 보고, 내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고 했던 그 토마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또한 교황, 지금은 성인이 되신 성 요한 바오로 2 세께서 폴란드의 파우스티나수녀님의 영감을 통하여 공포하신 **하느님의 자비주일** 입니다. 많은 성당들은 12시 부터 성체조배에 들어 갑니다. 그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그것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고해성사를 듣다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무 죄가 없는 분들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나의 고백, 나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 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자비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는 내안에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진정으로 느낄수 없고, 그분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미사 중에 우리 자신이 하느님께 청하지만 마시고, 우리 자신이 신앙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성찰해 보면서 **바로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1 독서

<한마음 한뜻>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4,32-35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118(117),2-4.16-18.22-24(◎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 알렐루야.)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제 2 독서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 1 서의 말씀입니다. 5,1-6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 20,2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 음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31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오기는 지니오 비어사 ” 하고 마친여디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